

## 코로나 화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2)

### 본문 야고보 1:2-4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알라”는 것이다.

#### 야고보서 1:2-3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우리말로는 “앎이라”고 번역 되었는데 원문에는 1절은 “여기라”는 말로 시작하고 2절은, “그리고 알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대매카트니 라는 학자는 이것을 “그리고 알라”로 번역 했 다. 그리고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이것을 명령형으로 이해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나온 명령형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한다.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한 후에 명령을 한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명령형 앞에는 서술형이온다” Indicative comes before Imperative.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령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명령대로 행할 때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명령은 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 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원수를 좋아하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뭐가 다른가? 원수를 좋아 하라는 것은 감정이다.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좋아 하는 감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큰 희생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최고의 유익을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일지라도 그의 최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최고의 희생은 아닐지라도 나의 적은 희생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성경의 명령을 백프로 행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바라보며 실습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는 내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환난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그리고 알라”라고 말한다. 알아야 할 것은 환난을 통한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불행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

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환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환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다.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 대해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환난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 들인다. 나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는 환난을 극복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 생각 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운명입니까?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차마 그 말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때 너무 너무 중요한 인내라는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환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 그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 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가짜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환난 때 그 환난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미리 믿음을 시험하신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에서 주인공이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라서 보석이 하나도 없었다.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려 중요한 파티에 참여 했다가 그만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 일생동안 돈을 벌어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에게 갚다 주니까 친구의 답변, “그것은 가짜였는데” 가짜 목걸이를 진짜인줄 알고 일생을 허비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때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은 가짜야”하는 선고를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정 받은 참 믿음은 인내라는 보배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환난의 의미를 잘 몰라서 환난 가운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심방 한답시고 찾아와서 이 사고는 하나님이 네가 죄를 범해서 벌을 준 것이다. 너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큰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환자가 어떻게 감당 할 수 있겠는가? 당장 이런 기독교는 못 믿겠다고 포기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환난을 잘 못 이

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욥을 찾아 가서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마구 책망을 한다. 결국 그들이 생각이 얼마나 틀렸던가를 하나님이 밝혀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해서 용서를 받게 했다(욥기 42:7-8).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잘 못 알기 쉬운 것들이 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벌을 주시는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운명이 이렇게 살도록 주어진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은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환난이 가져올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한다. **그리고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왜 이 환난이 오게 되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마 16:3)고 책망 했어요. 코로나가 생기자. 존 파이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는 책을 썼다. 코로나라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 중의 한 목사가 있는데, 그는 위암으로 위를 다 절제해 내고, 비장, 신장까지 잘라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극도의 고통 중에 있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환난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 하도록 주신 축복이라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극한 육체적 고통을 참고 항상 감사 할 수 있었다. 환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 그는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현재 힘차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가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약 2개월 정도 매일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다.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 때 내가 그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도움을 준 책이 있다. 그 책은 Jerry Bridges가 쓴 “Trusting God(Even When Life Hurts)” 이다.

“그리고 알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난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의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마스크 쓰는 훈련, 거리 두기 훈련, 욕신을 즐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 인내하며 기도하는 훈련, 인내하며 성경 읽은 훈련이라는 것을 알라.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이루라”라는 말씀을 드리겠다.